

영국중세진보적시문학의 주제사상적특성

류 현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탄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혁명이 일어납니다. 노예사회에서 봉건사회로 넘어갈 때에도 그랬고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사회로 넘어갈 때에도 그랬습니다.》(《김일성전집》 제58권 209페이지)

영국중세진보적시문학작품들은 봉건사회의 형성과 강화, 붕괴시기 영국하층인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봉건적질곡과 예속에서 벗어날것을 바라던 그들의 지향을 노래하고있으며 그 이후시기의 진보적시문학발전을 위한 토대로 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영국중세진보적시문학의 주제사상적특성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봉건사회의 불합리한 현실과 봉건통치배들의 부패상을 폭로하며 봉건적질곡과 예속,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것을 바라던 당시 하층인민들의 사상감정을 노래한것이다.

영국봉건통치배들은 끊임없는 해외침략전쟁과 피비린내나는 권력쟁탈전에 광분하면서 그에 필요한것들을 인민들에 대한 수탈로 충당하기 위해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억압하였다. 하층인민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비참해졌으며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인민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갔다.

영국중세진보적시문학작품들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봉건사회의 부패상과 봉건통치배들의 패덕을 폭로비판하고 온갖 봉건적질곡과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생활하려는 인민들의 지향을 노래하였다.

대표적작품들로서는 중세초기에 창작된 시 《남편의 기별》, 로빈 후드에 대한 담시들, 《빼꾸기의 노래》, 《봄》, 《부영이와 찌꼬리》, 문예부흥기시기에 창작된 시 《궁정의 식사》, 《콜린 클라우트에 대한 책》, 《앵무새야 말하라》, 《궁정》, 《필리프 스페리우에 대한 이야기》, 봉건사회붕괴기에 창작된 시 《카톨릭교와 독재정권의 강화에 대한 이야기》, 《로마에 온 영국 선교사 플렉크노》, 《네데를란드》, 《화가에게 준 마지막지령》, 《왕의 맹세》, 《두 말의 담화》, 《실락원》 등이 있다.

영국중세진보적시작품들에서는 봉건사회의 부패상과 통치배들의 패덕을 폭로비판하였다.

13세기에 창작된 시 《남편의 기별》에서는 침략전쟁을 위한 봉건통치배들의 압박과 악착한 세금수탈로 말미암아 생활이 비참해질대로 비참해진 한 영국농민의 슬픈 처지를 그려보여주고있다.

이 시기 시작품들에서는 온갖 봉건적질곡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려는 인민들의 지향을 노래하였다.

중세초기에 창작된 로빈 후드에 대한 담시들에서 주인공 로빈 후드는 봉건통치배들의 악행으로 인한 가정적불행에 더는 참지 못하고 숲으로 달아나 자유로운 생활을 마음껏 누린다. 이것은 당시 농민들의 사상감정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주제사상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 《빠꾸기의 노래》, 《봄》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시 《빠꾸기의 노래》는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다시 온데 대한 농민들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노래한 시로서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끼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는 당시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이 시기 시작품들에서는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을 직접 노래하고있다.

로빈 후드에 대한 담시들에서 나오는 주인공 로빈 후드는 봉건통치배들에 의하여 참을수 없는 가정적불행을 겪고 그를 복수하기 위하여 숲속에 들어가 《의적》단을 맺고 귀족들과 부자들을 습격하여 로획한 돈과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지어는 국왕으로부터 귀빈의 자격으로 왕궁에 초청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왕궁생활이 마음에 안들어 숲속으로 돌아온 로빈 후드는 《의적》활동을 계속한다. 국왕과 봉건통치배들은 로빈 후드를 극도로 미워하며 나중에는 비열한 방법으로 그를 살해하고만다.

이러한 주제사상은 영국에서의 봉건제도붕괴기인 17세기에 창작된 서사시 《실락원》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영국에서는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절대군주제가 인민대중의 반항에 직면하여 위기에 처하고 사회계급적모순이 극도로 격화되어 부르조아혁명의 기운이 높아가고있었다.

작품의 주인공인 싸탄은 《최고신》을 반대하는 대전쟁을 일으켰다가 패하여 《지옥》에 떨어지지만 《최고신》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한다. 싸탄은 신이 창조한 《에덴동산》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신에게 다시 반항해나선다.

이러한 싸탄의 용감한 투쟁도 역시 나중에는 《최고신》에 의해 실패하고만다. 그러나 작품에서 싸탄은 압제와 구속을 반대하고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려는 열렬한 자유애호정신을 소유한 인물로 그려지고있다.

시작품은 당시 날로 높아가고있던 인민대중의 반봉건적의식과 투쟁정신을 기본주제로 내세우고있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영국중세진보적시문학의 주제사상적특성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사람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드는 종교를 비판하고 종교의 허울밑에 온갖 기만적이고 교활한 방법으로 인민들의 피땀을 빨아먹던 교회와 승려들의 부패상을 폭로비판한것이다.

중세영국에서는 교회와 승려들도 봉건통치배들과 한 짝이 되어 온갖 기만적이며 위선적인 방법으로 인민들을 정신도덕적으로 지배하였으며 그들을 끊임없이 착취하면서 부패타락한 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교회와 승려들을 야유조소한 대표적시작품들으로써는 중세초기에 창작된 시 《폰전》, 《에드워드 2세시기의 악몽같은 세월을 돌이켜보며》, 《밭밑에 놓인 신성교회》, 《동냥승과 그의 시중군들》, 《코켄인의 땅》, 이야기시 《캔터베리이야기》, 문예부흥기시대에 창작된 시 《목동의 력서》, 《선녀녀왕》 등이 있다.

시 《밭밑에 놓인 신성교회》에서는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사고파는 승려들의 행위에 대하여 폭로하면서 우두머리인 법왕까지도 뉘를 서슴없이 받아먹는다고 풍자하고있다.

한편 시 《코켄인의 땅》에서는 승려들의 락원으로 불리우는 코켄인지역에 대하여 풍자적으로 그리면서 이곳은 호색한들이며 게으름뱅이들인 승려들이 모여있는 썩어빠진 곳이

라고 폭로하고있다.

이야기시 《캔터베리이야기》는 당시 영국봉건사회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있던 교회와 승려들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생동하게 풍자비판한 대표적인 반종교시작품이다.

시에서는 《성자요》에로의 순례길에 오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카톨릭교승려들의 부패상을 야유조소하고있다. 시에서는 각종 성직에 있는 인물들의 외모와 행동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승려들은 탐욕스럽고 교활하며 위선적이고 인민들을 략탈하는데서 파렴치하고 가혹한 착취배들이라는것을 까밝히고 그들에 의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동정해나서고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수도승은 카톨릭교의 성실한 《전도자》로 둔갑하고 사람들에게 그 에 충실할것을 강요하면서 돈을 악착하게 빨아내지만 속으로는 제가 앞장서서 지켜야 할 교회규율을 시끄러운것으로 여기면서 그에 대한 반발로 사냥에 미쳐다닌다.

녀자수도원장은 자기를 그 무슨 《도덕》의 《최고체현자》로 내세우면서 지어는 짐승박해까지 가슴아파하며 온갖 위선적인 행위로 사람들을 기만한다. 이것은 당시 승려계층의 탐욕스럽고 교활하며 위선적인 성격을 그대로 나타낸 묘사이다.

동냥승은 부자들에게는 낮추붙어 아양을 떨지만 거지들과는 알고지내야 좋을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을 사람취급도 하지 않는다. 이 동냥승은 돈을 위해서라면 그 무슨짓도 서슴지 않는데 지어는 신발도 제대로 신고다니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도 온갖 감언리설로 몇푼 안되는 돈까지 말끔히 털어내고야만다.

법정호출원은 녀자와 술이라면 오금을 못쓰는자이며 《면죄부》판매원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골동들을 들고다니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각종 《면죄부》를 팔아 돈벌이를 하는 파렴치한자이다. 이런자들의 형상을 통하여 종교라는 간판밑에 인민들에게서 갓은 협잡과 사기로 돈을 수탈해내던 당시 교회와 승려들의 부패상을 잘 보여주고있다.

서사시 《선녀녀왕》에서도 문예부흥기시대의 인문주의사상을 구현하고 인간생활의 기쁨,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인간의 힘과 능력에 대한 찬양을 주장하였으며 이 모든것을 부정하고 사람들을 맹목적이며 무지몽매한 존재들로 만들려는 로마카톨릭교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다.

영국중세진보적시문학의 주제사상적특성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하층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동정하면서 그들의 성실한 로동생활을 찬양한것이다.

중세진보적시문학작품들에서는 근로하는 농민을 내세우고 로동이 중요한것만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다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사상을 일정하게 제기하고있다. 이것은 기생층적무위도식에 빠져있는 귀족을 비롯한 봉건통치계급에 대한 비판폭로도 된다.

그것은 서사시 《농부 피어스에 대한 꿈》에서 나오는 농부 피어스의 형상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높고낮은 여러 계층의 많은 사람들속에 7대죄악의 무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리》라는 《성인》을 찾아가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 한명도 없는데 오직 피어스라고 하는 농민만이 그 길을 알고있다. 피어스는 그 길을 로동을 통하여 찾았다고 말한다.

이처럼 영국중세진보적시문학작품들에서는 당시 사회의 최하층에서 온갖 봉건적질곡과 압박을 받으며 살던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귀족, 승려들에 비한 그들의 정신도덕적우월성에 대한 찬양을 하나의 중요한 주제사상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영국중세진보적시문학작품들에서는 봉건왕에 대한 환상, 근로대중의 그 어떤 투쟁도 결국에는 봉건통치배들에 의하여 좌절된다고 본 비관주의 등 제한성들이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당시 영국인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낮고 이 시기 시인들자체의 세계관적제한성과 관련된다.

영국중세진보적시문학은 봉건통치배들이 살판치고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세영국 봉건사회의 부패상을 폭로하고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려는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한 진보적인 주제사상적내용을 제기한것으로 하여 영국근대진보적시문학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